



핵심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확보

두산중공업(주)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원자력 사업 관련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해 한국중공업(주)에서 민간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두산중공업(주)는 2001년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내실을 다진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여년간 물들은 공기업 체질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내부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온 한 해였으며, 1999년 사업 구조 조정(빅딜)에 의해 국내 유일의 발전 설비 업체라는 장점과 해외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발전 설비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1997년 TMI 사고 및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침체의 늪을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은 극동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원자력 발전소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

가가 없을만큼 그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은 한 원자력이 인류의 주발전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경영 체질 개선

지난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민영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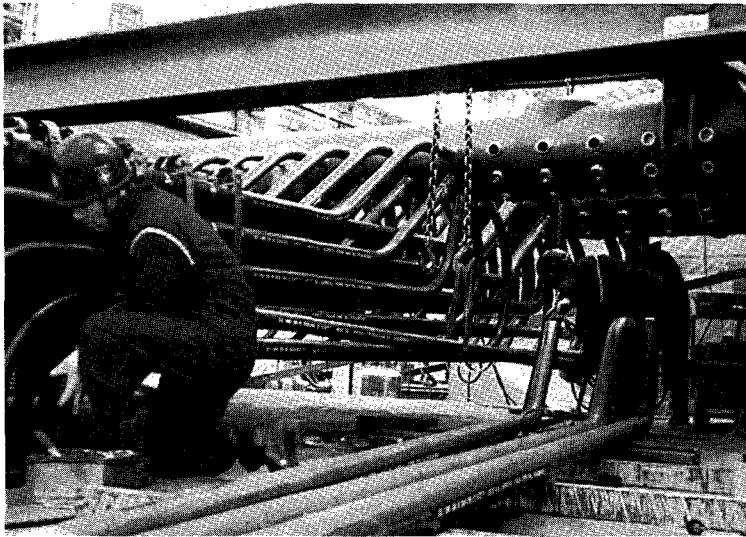
두산중공업(주)는 지난 40년 동안의 축적한 기술 및 경험과 두산이 구조 조정을 통해 이룩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Cashflow Management) 및 베이직 매니지먼트(Basic Management) 등의 선진화 된 경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며, 성과에 근거한 평가

보상, 선진 Corporate Governance 등은 향후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객의 발전 건설 단가 인하 요구에 부응하여 당사도 지속적인 원가 인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으로 당사의 체질과 구조도 Cost 개념에 부합된 기업 구조로 변화시킴과 아울러 경영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전략적 제휴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은 합병·인수를 통해 GE·웨스팅하우스·알스톰 등 기술과 자본을 앞세운 몇 개 메이저 업체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산중공업(주) 역시 새로운 활로로 전략적 제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세계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업망, 자본 활용 등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세계 원전 산업의 One of The Major Players 발돋움한다는



무한 경쟁 시대에 두산중공업(주)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설비 제작에 국한되어 있던 사업 범위를 엔지니어링, 제작·설치·시운전 등 전분야에 걸친 사업 다각화를 이룸으로써 미국의 GE나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Total Solution Provider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주)는 서서히 발주가 재개되고 있는 미국의 RSG 시장을 WEC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적극 공략할 계획이며 올해는 그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1997년 1월 캐나다 AECL과 중국 진산(Qinshan)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산 원전 설비 수출 시대를 열었다

이와 더불어 1999년에는 원전 설비 기술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시쿼이어(Sequoyah) 원전 용 증기발생기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전 설비 수출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도 세계 메이저 발전 설비 업체 중 하나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및 영업망을 활용, 터키·헝가리 등 신규 해외 원전 시장 및 미국 내

발전 설비 개보수 시장에 동반 진출함으로써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 공장 가동률 향상, R&D 비용 절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두산중공업(주)는 해외 원전 설비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원전 건설 경험과 더불어 외국 업체로부터 선진 설계 및 제작 기술의 도입을 통해 설계 및 기술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다양한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세계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두산중공업(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 201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전이 주도로 개발중인 1,400 MW급 차세대 원자로 3단계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주기기 등의 기본 설계를 완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 표준형 원전의 경우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계 개선 사업에 착수, 건설 예정중인 신고리 원전1·2호기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맺음말

무한 경쟁 시대에 두산중공업(주)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설비 제작에 국한되어 있던 사업 범위를 엔지니어링, 제작·설치·시운전 등 전분야에 걸친 사업 다각화를 이룸으로써 미국의 GE나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Total Solution Provider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해외 원자력 산업계가 국영을 초월한 흡수 합병으로 대형화·종합화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당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생존의 전략을 꾸준히 개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속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며, “고객은 우리의 스승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혁신은 우리의 생활이고, 인재는 우리의 보배이다”라는 경영 이념에 따라 선진 경영 체제가 확립된 회사, 국제 경쟁력을 지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